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 세션 3: 유대교 종파와 기관

테드 힐드브란트 박사

#### A.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의 지배 [00:00-5:12]

##### A.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의 테트라크

[짧은 영상: AB 결합; 00:00-7:22]

오늘 오후에 신약의 배경에 대한 다음 영상 세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신약의 역사적 배경을 가진 역사적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인과 구약의 "기름 부음받은 자"인 일종의 메시아적 인물인 키루스 대왕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한 조직자였던 다리우스로 넘어갔고, 다리우스는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은 우리를 예수 시대로 데려갈 것입니다. 예수는 헤롯 대왕이 엄청나게 개조하고 확장한 두 번째 성전에 들어올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계속해서 나가서 이집트, 터키,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인더스 강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리스인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것은 그리스인들과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여 그의 아버지인 마케도니아의

필립의 군대를 인수하고 그 군대를 타고 터키로 진군하여 페르시아인을 무찌르고 이집트로 진군하여 메소포타미아까지 갔다가 다시 인더스 강, 아프가니스탄, 이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 10년 또는 12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 다음 알렉산더는 32 세 또는 33 세 의 나이에 일찍 죽었습니다. 그의 자식은 너무 어려서 계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네 명의 장군이 계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티고노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시리아로 넘겼고 프톨레마이오스는 남부와 이집트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다음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스라엘을 차지했습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마이오스 1세, 2세, 3세, 4세, 5세... 이런 프톨레마이오스가 20명에서 30명 정도 일렬로 있습니다. 약 100년 동안, 기원전 300년에서 200년 사이에 프톨레마이오스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며, 사실 그들에게 가장 큰 업적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었고, 그것을 칠십인역, LXX 라고 불렀습니다 . 지금은 관대한 프톨레마이오스 덕분에 세상이 읽을 수 있는 그리스어 성경이 있습니다.

약 200년, 약 198년 BC에 시리아인들이, 기본적으로 시리아인들이 내려와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이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와 상 마카비서가 발생합니다. 시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헬레니즘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엄청난 문화 전쟁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할례를 하지 않게 하고, 성경을 불태우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카비서의 다섯 소년들이 일어나 시리아인들과 싸우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마침내 시리아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다섯 마카비 중 한 명인 시몬(유다는 전사였고, 요나단은 외교관이었습니다)이 대제사장직을 세우고 "하스모네아 가계"라고 불리는 것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스모네아 왕조는 바리새인들이 소개되는 요한 후르카누스로 이어지고, 그다음 알렉산더 안나이우스와 살로메 알렉산더로 이어집니다.

하스 모니안 왕조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그때 로마가 개입했습니다. 로마는 '우리는 세금을 원하고 당신들은 싸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개입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지성소에 들어갔고 헤롯은 기원전 37년경에 유대인의 왕으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헤롯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 특히 클레오파트라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결국 마카비의 시몬의 혈통인 하스모니안 왕조의 아내 마리암네 를 죽이고 맙니다 . 헤롯은 그녀와 결혼했지만 그녀와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얻은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헤롯은 기원전 4년경에 죽었고 그래서 예수는 실제로 기원전 5년경에 태어났습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는 월식이나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원전 0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원후/기원전 체계가 기원후 625년경에 어떤 사람이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원후 625년부터 예수 시대까지의 시간을 알아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 4~5년 놓쳤습니다. 현대 도구 없이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식과 다른 것들을 통해 헤롯이 기원전 4~5년경에 죽었고 그리스도는 아마도 기원전 5년경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나. 분봉왕들 [5:12-7:22]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우리는 테트라르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테트라르크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은 신약성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는 파이에서 가장 큰 조각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유대를 얻었는데, 기본적으로 유다의 지파 지역으로 사해 서쪽, 예루살렘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이두매를 얻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남쪽에 있고 사해의 남쪽, 남동쪽에 있는 에돔 사람들의 지역으로 에돔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는 또한 사마리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이에서 가장 큰 조각을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두 배의 부분입니다. 그의 생애 후반인 서기 6년경에 그는 로마인들에 의해 갈리아로 추방되었고 아켈라오는 꽤 일찍 사라졌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와 세례 요한이 마주칠 갈릴리의 헤롯 안티파스가 될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페레아를 북쪽으로 더 높이 올립니다. 세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자 헤롯이 '내 왕국의 절반이나 원하는 대로 줄게' 라고 말했고, 딸은 '쟁반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 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참수당했습니다. 그는 꽤 나쁜 사람입니다. 헤롯 빌립은 다른 형제이고 그는 헤로디아스의 전 남편이며 갈릴리해 동쪽의 골란 고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을 얻게 되고, 그들은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테트라 4명을 의미하는데, 왜 형제가 3명뿐일까요? 아켈라오스가 두 배의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아켈라오스가 두 배의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지역이 있고 아켈라오스는 그 중 두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이후에 네 개의 분봉왕과 이런 다른 지역으로 나뉘었고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나뉘었습니다.

## ㄷ. 유대 전통 - 바리새인들 [7:23-9:43]

### B. 유대적 배경: 타르굼 , 미드라쉬, 미슈나, 위경

[짧은 영상: C- H 결합 ; 7:23-22:45]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대화를 역사에서 더욱 사회학적이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것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유대 문학과 유대 종파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 종파'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하지만 이것은 "종파"를 종파라고 철자한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디에서 왔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바리새인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기원전 104-110년경 요한 후르카누스 시대에 생겨나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110년경에 바리새인이 생깁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 후르카누스에게 배척당했고 그는 수백 명의 바리새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기원전 1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장이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구전 전통에 동의했습니다. '전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모두가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전통, 전해진 구전 전통에 열광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경과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구전적 의사소통을 받았고, 기본적으로 40일 40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전 전통이 전해졌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구전 전통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그들의 종교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구전 전통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설명적이고 다른 하나는 논리적으로 연역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 중 일부를 살펴보고 이 기간과 실제로 조금 후에 나온 문학의 다양한 측면과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즉, 이 기간의 유대 문학입니다.

#### D. 유대 문학: 미드라쉬- 할라카와 하 가다 [9:43-11:28]

그럼 해설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해설하는 해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다음 성경 해설에서 나온 논리적 추론, 신학적 추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드라쉬입니다. 미드라쉬는 서기 200년경에 나왔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설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대한 해설과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 본문을 받고 서기 200년경 미드라쉬에서 해설합니다. 미드라쉬가 해설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라카* 라고 하는데, *할라카*는 더 법적 지향적이므로 변호사가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의 논리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나귀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에 꺼내도 될까요? 그래서 *할라카*가 있고,

거기에는 법적 섹션이 있습니다.

하가 *다*는 대부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가다*는 랍비들이 말하는 이야기이므로, 이것들은 더 교훈적이고, 이야기 형식에 더 가깝고, *할라카*는 서기관처럼 더 합법적일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람들은 *할라카를 바탕으로 일하고* , 이야기를 들려주는 랍비들은 *하 가다가 될 것입니다* .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의 문헌은 미드라쉬에서 발견됩니다.

#### E. 타르쿰 [11:28-13:25]

이제 미드라쉬에 이어 유대인들 사이에서 밀접한 텍스트 작업의 또 다른 측면을 타르쿰이라고 합니다. 타르쿰은 사실 히브리어의 아람어 번역본입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어가 있었고, 구약성경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예수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조차도 여러 번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 탈리타 kum , "라고 말했고, 당시 예수와 사람들이 아람어를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다른 속담도 말했습니다. 예수는 아마도 그리스어를 알고 있었고 아마도 히브리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2개 국어를 구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3개 또는 4개 국어를 구사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문화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언어를 배웁니다. 하지만 예수의 모국어는 아마도 아람어였고, 그는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아람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아람어는 사람들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겔과 함께 바빌로니아에 갔을 때 아람어를 습득했습니다. 그들이 바빌로니아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람어를 습득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경의 텍스트가 아람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를 타르굼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온켈로스 의 타르굼 과 다양한 다른 타르굼. 이 타르굼은 아람어로 쓰인 구약성경으로 읽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해설, 법적 측면, 이야기적 측면인 미드라쉬를 가지고 있고 타르굼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르굼은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과 유사한 성경의 아람어 번역본입니다.

#### F. 미슈나, 토세프타 , 탈무드 [13:26-16:11]

다른 유대교 전통에는 논리적인 섹션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섹션은 미슈나라고 불리는 그 두께의 문서에 초점을 맞춥니다. 미슈나는 기본적으로 시나이산에서 전해진 구전 전통으로, 서기 200년경 또는 그 이전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성전이 무너진 후인 서기 70년입니다. 미슈나는 시작해서 랍비들 사이의 이야기, 논쟁, 미슈나에 대한 내용을 듣습니다.

그것은 전해진 구전 전통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전설 중 일부는 서기 7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시대를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슈나는 예수 시대부터 또는 서기 70년 성전이 무너진 이후, 기록된 서기 200년경까지 이어지는 구전 전통의 주요 작품입니다.

토 세프타는 기본적으로 미슈나보다 조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토세프타에는 미슈나에 대한 논평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슈나는 200년경에 성전이 무너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을 설명하는 원본 문서이고, 토세프타는 미슈나에 대한 논평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탈무드. 탈무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는 서기 400년경에 나왔고 예루살렘 탈무드는 서기 600년경에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신약성서 연구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지만 유대교에 대해 공부한다면 탈무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선반 위의 탈무드는 대략 이 정도 크기입니다. 각 권은 약 2,000페이지로 방대합니다. 탈무드는 대체로 미슈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즉, 탈무드는 구전 전통을 가져와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는 바빌로니아에서 이루어졌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과 동일시됩니다. 둘 다 방대합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는 서기 400년이고 예루살렘 탈무드는 서기 600년으로 미슈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미슈나는 아마도 성전이 무너진 후 1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때가 교회가 성장하던 때입니다.

이것은 많은 유대교를 이해하는 데 배경이 되는 문헌입니다.

#### 나. 외경과 정경 [ 16:11-18:28]

성경 외의 출처가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이야기한 성경 외의 출처 중 일부입니다. 실제로 마카비 상권을 읽어야 했습니다. 마카비서는 기원전 165 년경에 쓰여졌으므로 실제로는 그리스도 이전입니다. 벤 시라흐의 지혜서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잠언을 상당히 연상시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들을 기록하고 읽었지만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에게서 구약 정경을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구약 정경은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 선지서, 성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오경일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수아에서 시작하여 사무엘과 열왕기까지 전자 선지자의 일부로 올라갔고, 후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열두 선지자가 되었고, 이들은 한 권의 책으로 나뉘었습니다. 열두 소선지서입니다. 성문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그런 종류의 책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선지서(전자 선지자, 후자 선지자) 그리고 성문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유대교 정경의 세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흥미롭고 좋은 책들입니다. 사실 16세기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외경이 교회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에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트렌트 공의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논쟁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외경을 받아들이지만,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글이지만, 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카비 상권 에서도 선지자 가 없고 선지자 없이는 성경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 하지만 유대인들은 대체로 구약성경 정경을 우리에게 주고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H. 위경 : ...의 복음서, ...의 행적서, ...의 묵시록 [18:28-22:45]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위경(Pseudepigrapha)이라고 불립니다. 위경은 흥미진진합니다. 세 가지 다른 섹션으로 나뉩니다. 우선 위경은 "위도(pseudo)"입니다. "위도(pseudo)"는 거짓을 의미합니다. "에피그라파(Epigrapha)"는 "기록(writings)"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경"은 거짓 기록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는 당시에 널리 퍼졌던 책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복음서(the Gospel of...)"가 있습니다. 약 4~5년 전

부활절 때 그들은 유다 복음서를 우리에게 펼쳤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화 전쟁과 마찬가지로 부활절 무렵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때 그들은 기독교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유다 복음서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가 그 책을 집어서 첫 페이지나 그 정도만 읽어봤을 때 그것은 분명히 영지주의 문서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기원후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2세기에 살았고, 1세기에는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명히 훨씬 나중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시대로부터 100년 후에 쓰여졌고 관련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복음은 큰 복음이고, 베드로 복음, 도마 복음, 빌립 복음, 그들이 '...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교회에서 이러한 신성한 기록들 사이의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짓 기록들이었고 사도의 이름을 붙여서 지위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 복음이 있는데, 꽤 흥미로운 읽을거리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살이었을 때와 그가 친구들과 함께 한 일들과 그들을 다양한 것으로 만든 일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기의 일부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복음, 도마 복음, 빌립 복음.

책의 또 다른 범주는 이러한 "...의 묵시록"입니다. 요한의 묵시록, 즉 계시록은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묵시록이 있었습니다.

묵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하며 세상이 폭발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말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도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영화가 있는데, 소행성이 세상을 강타하여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의 종말을 묘사합니다. 묵시록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묵시록, 바울의 묵시록, 도마의 묵시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묵시록이 있고 요한의 묵시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문학 장르였습니다. 요한은 그런 유형의 문학을 사용하여 계시록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묵시록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흥미로운 것입니다. 저희는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 사무실에는 두께가 1인치 반 정도 되는 책 두 권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 시기에 나온 신약성서 문서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경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도마의 복음서'와 '베드로, 바울, 도마의 묵시록'이 있고, '행전'이 있고, 우리의 경우 신약에서 사도행전이 있는데,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와 바울의 세 차례 선교 여행, 포로 생활,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해 쓰여졌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행전, 안드레행전, 바울행전, 요한행전, 도마행전이 있습니다. 도마행전은 이 모든 장르에 등장하는 듯하지만, 도마행전과 요한행전은 이러한 배경 이야기 중 일부를 알려줍니다. 흥미로운 책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들은 신약 연구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문화와 당시 논의되었던 아이디어의 종류에 대한 흥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보통 이것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 시대 이후의 것이고, 일부는 100년, 200년 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 일부는 관련성이 있고, 일부는 그다지 관련성이 없습니다.

## I. 랍비들의 사고방식: 마태복음 23:24-25 [22:45-28:06]

### C.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짧은 영상: IL 결합; 22:45-35:43]

다음은 랍비들이 사물을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위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마태복음 23장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크게 비난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화가 있을진저, 위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느니라. 먼저 잔과 접시의 안을 깨끗이 하여 겉이 깨끗해지게 하라.” 그래서 잔의 안과 밖 사이에 이런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의 겉을 깨끗이 하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 안은 커피 찌꺼기나 뭐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나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잔의 안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잔 의 안은 바깥보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과 밖, 즉 잔 논쟁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초기 랍비 중 일부가 같은 것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라는 것은 꽤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샬마이는 기본적으로 안이 더럽더라도 바깥은 깨끗하다고 주장합니다. 잔의 바깥은 깨끗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만져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의 바깥은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안이 더럽더라도 바깥만 깨끗하면 됩니다. 그것이 샬마이의 입장이었습니다. 샬마이는 위대한 랍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기 시대의 위대한 랍비는 네 명이 있습니다. 힐렐은 한 명, 샬마이는 또 다른 한 명,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가말리엘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거의 기독교인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랍비 아키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4명의 위대한 랍비, 샬마이 , 힐렐, 가말리엘, 아키바가 있습니다. 샬마이는 잔의 겉면이 깨끗하다면 중요하지만, 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힐렐은 반대 입장을 취하여, 아니요, 잔의 속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잔의 속이고 겉면은 항상 더럽고, 중요한 것은 잔의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잔의 속이 중요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힐렐이 말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힐렐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있고, 둘 사이의 연관성은 그저 흥미롭습니다.

주기도문을 여기에 올려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많은 내용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은 표현은 랍비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을 보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러면 형제의 눈에서 티끌(티끌)을 빼는 법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네 눈에서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서 티끌을 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랍비 타르폰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세대에 누가 책망을 받아들이는지 아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그에게 ‘눈 사이의 티끌을 빼라’고 하면, 그는 ‘네 눈 사이의 들보를 빼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랍비 타르폰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평행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의 티끌과 눈의 들보의 차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평행합니다.

또 다른 것은,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유가 위경이나 사해 두루마리에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랍비들에게는 비유가 풍부했습니다. 미드라쉬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씨앗의 비유인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씨앗과 잡초의 비유가 있는데, 주인이 좋은 작물을 심었는데 어떤 원수가 와서 나쁜 것을 심었고, 주인은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등이 있습니다. 랍비들도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르치고 사실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올 때면 종종 그를 "랍비"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유대인이고, 비유로 가르치고, 당시 유대인의 이미지와 어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이고, 저는 그가 사용하는 방식의 문학과 표현 스타일과 이런 연관성을 찾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 J. 유대교 종파들: 바리새인들 [ 28:06-30:14]

이제 유대교 종파가 이것을 신약에 적용하여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적용하면, 바울이나 사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사울 왕은 어떤 부족 출신이었을까요? 그는 또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로 향하는 사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아마도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매우 유명한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힐렐, 샬마이, 아키바, 가말리엘에 이르기까지

가말리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 말씀드리고 예수가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6에서 자신이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에서의 자신의 배경을 조금 밝히고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유대교에서 뛰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신약성경에서 '화가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읽을 때 알아두는 것이 좋은 요점입니다. 누군가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은 대개 누군가가 종교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서 법률주의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편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리가 잘못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런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부유하지 않았고, 보통 가난한 여행 교사와 설교자였습니다.

#### ㄱ. 사두개인들 [ 30:14-32:28]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존경받지 못했고, 이 사람들은 부유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더 종교적이고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더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큰 대조가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유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점과 삶을 대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카비 시대에 알렉산더와 그의 네 장군으로부터 헬레니즘이 들어왔을 때, 그리스 문화가 들어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고수했고, 그들은 그것을 더 단단히 고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핵심적으로 유대인이었고, 그들의 유대성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던 세속주의에서 스스로를 분리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사두개인들은 그리스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동화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동화에 훨씬 더 열중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뒤로 물러나 그들의 전통을 두 배로 고수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본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상류 계층에서 나왔고, 그들은 그리스 문화에 동화되어 경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대제사장 가야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사두개인이 될 것이고, 유대인 의회는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 상류층, 엘리트, 상류 계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종교적이고 유대교를 존중하는 아래의 많은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ㄴ. 사두개인의 믿음: 전통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32:28- 35:43]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구전 전통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전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전 전통은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미슈나와 같은 것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물론 미슈나는 200년 후에야 쓰여졌습니다. 구전 전통이 전해진다는 생각은 바리새인 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구전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또한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더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스적 사고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있는 이원론이 더 많고, 그리스 문화에서는 육체적인 것이 폄하되고 영적인 것이 더 높이 평가됩니다.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이원론이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영적인 것은 칭찬받고 육체적인 것은 폄하되거나 폄하됩니다. 그래서 부활된 몸을 원하지 않는 것은 몸이 육체적이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영적이기를 원합니다. 플라톤과 동굴과 비슷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보편적인 형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사도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나 천사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마태복음 22장, 23장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여인이 남편이 있고, 자녀가 없고, 남편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롯기와 구약성경의 다른 법적 텍스트에 나오는 레비라테 결혼에서 요구되는 것은, 형이 여자와 결혼해야 하므로, 형이 그녀와 결혼하고, 그도 죽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형이 있고, 마침내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결혼하고, 그녀도 죽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이 난제를 제기하여 기본적으로 "예수님, 부활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훌륭하게도, 여기서 아이러니를 보실 수 있듯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이러니를 이해하시나요? 사두개인들도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부활 때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은 천사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반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승에 가면 결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사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 면에서 그들의 결점을 이용하여

다른 면에서 그들을 반박하셨고, 여러분은 그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두개인들과의 문제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죠. 요한 히르카누스가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의 큰 갈등을 기억하세요. 그 둘 사이에 큰 긴장이 있었습니다.

#### M. 에세네스 [ 35:43- 36:56]

##### D. 에세네파, 열심당원, 사마리아인

[짧은 영상: MP 결합; 35:43-46:51]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다음 그룹은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아니면 제가 방금 뉴욕에 가서 사해 두루마리에 대한 전시회를 관람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을 [ 야하드 ], "하나", "그룹", 그런 종류의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공동체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에세네파는 기본적으로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헬레니즘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전통을 고수했고,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당신들, 그리스인들과 동화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세네파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너무 '관대'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직에서 하스모네아 통치자들을 받아들였고, 에세네파는 "아니요, 아니요 대제사장직은 사독 사제,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독 사제들이 운영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철수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예배가 부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모두, 우리는 그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떠나 사막의 사해로 내려가서 그곳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소는 쿨란이라고 불렸고, DSS,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곳입니다.

#### N. 사해 두루마리 [ 36:56-39:41]

사해 두루마리는 1948년경에 사해 지역의 동굴에서 놀던 베두인족 소년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동굴에 돌을 던졌는데 쿵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짱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고, "뭔가 들어있어"라고 말하며 들어가 사해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아래에 동굴이 있고 사해 두루마리를 본 적이 있다면 1Q, 2Q, 3Q, 4Q라고 설명할 겁니다. "4Q"는 "쿨란의 4번 동굴"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죠. 그들은 어느 동굴에 있는지 말해줍니다. 6번 동굴이나 11번 동굴 Q - 쿨란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는 하박국이나 시편이나 그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가 사해 두루마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그때 그곳에서 한 일은 전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스모네아 신권이 필요 없었고, 하스모네아 신권은 마카비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독 신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전은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분열되었고, 그들은 "성전" 대신 "토라"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나와서 거기에 내려가서 경전을 베끼고, 토라를 베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은 항아리에 담겨졌고, 이 항아리들은 동굴에 담겨졌고, 1948년에 이 베두인족 소년이 사해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20세기에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히브리어 지식을 약 천 년 전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의 히브리어 지식, 가장 좋은 사본들은 서기 800년에서 1000년경의 것이었고, 사해 두루마리로 우리는 서기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의 천 년이 도약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천 년 동안 사본들이 얼마나 잘 보존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세네 공동체가 수도원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묘지에서 발굴을 했고, 묘지는 실제로 누가 거기에 살았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거기에 몇몇 여성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것에 대해 큰 논쟁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도원 생활을 했을 텐데, 무덤에서 이 여성들을 발견했으니 사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저 서기관들과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은 세례 와 씻을 곳이 많았고, 청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는 너무 엄격해서 바리새인들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그들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 오. 열심당원들 [39:41- 40:36]

이제 또 다른 집단은 열심당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열심당원으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이전에 언급했습니다. 데이브 매튜슨 박사 가 말했듯이 열심당 성향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정치적, 군사적 일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들어와 예수 시대에 지배권을 행사했을 때 열심당원들은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내어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왕국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그리고 매우 물리적으로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1세기 테러리스트 집단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을 붙잡고 로마인을 죽이면 좋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가 지배하는 것에 대한 열심당원들의 반대에 관한 한 정치적, 군사적 일이었습니다.

## ㉠ 사마리아인들 [40:36-46:51]

사마리아인은 흥미로운 집단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마리아인은 신약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모두가 아는 가장 유명한 구절 두 가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가 구타당합니다. 레위인이 반대편으로 지나가고, 다른 사람도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심이 많고 그 남자를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미워했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미워했기 때문에 실제로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글썄요, 우선 기원전 721년이나 2년에 아시리아인들이 내려와 북쪽의 사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 통치 하의 북쪽 왕국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의 통치 하에서 왕국이 통일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그의 우상 숭배와 그의 아내들 이후, 왕국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 '보암' 형제와 왕국은 기원전 931년경에 분열되었습니다. 그때 북왕국은 수백 년 동안 금송아지를 쫓았습니다. 그런 다음 북왕국은 기원전 931년부터 기원전 722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아마 몇 백 년이겠죠. 아시리아인들은 기원전 721년경에 들어와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식인과 부유한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모든 지위 있는 사람들은 아시리아인들에게 끌려갔고 모든 땅은 남겨졌습니다. 북왕국은 끌려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는 기원전 722년 이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721년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사실 이스라엘 국가보다 뉴욕시에 더 많은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잔인한 아시리아인들에 의해 전 세계에 흩어졌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땅에 남겨졌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북왕국에서

상류 계층의 사람들을 모두 데려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을 데려와서 섞은 다음 가난한 유대인들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야 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혼혈로 인해 혼혈로 여겨졌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다른 집단들을 데려왔고 이방인 집단과 북왕국 사이에 혼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혈로 여겨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 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심 산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축복과 저주가 있었던 곳입니다. 세겜은 계곡에 있고 북쪽에 에발 산과 남쪽에 있는 그리심 산은 모두 크고 아름다운 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 위에 성전을 지었지만 유대인 성전은 예루살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심 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과 시온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종교 간에 갈등이 있는데, 유대 민족의 혼혈과 순혈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성전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기원전 110년경에 요한 히르카누스가 사마리아 성전을 불태우고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배가 와서 성전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심 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심 산 꼭대기에 사는 사마리아인이 약 400명입니다. 그들은 구약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경만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그런데 부활절 무렵에 그곳에 가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지금은 가기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월절을 축하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여러분은 올라가서 그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저는 모르겠지만, 이 방만큼 크고, 그들은 어린 양을 찢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린 양의 목을 자르고, 어린 양의 피를 취하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예배처럼 유월절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400명 이상이라는 것이고, 그들은 서로 결혼하고, 결혼하고... 사촌과 사촌이 결혼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 중 일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사마리아인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대제사장은 그의 모든 왕의 옷과 그의 모든 위엄을 갖추고 나왔고, 그의 백성들이 뒤따랐고, 그는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고, 우리를 그리심 산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랐습니다. 성전이 있던 플랫폼이 있는데, 조금 후에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세겜 과 에발을 내려다보는 그리심 산 꼭대기에서 찍은 아름다운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 사마리아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리심 산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400 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은 오늘날까지도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실 것이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과 이야기하실 것이고, 이 여인은 세겜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백성인 사마리아인들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며 그들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이런 긴장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혼혈로 보고, 정말 멸시스럽고, 가장 낮은 자로 여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내장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두 성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요한 히르카누스는 기원전 110년경에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 Q. 이산민과 회당들 [ 46:51-48:57]

### 마. 회당과 산헤드린

[짧은 영상: QT 결합; 46:51-59:33]

이건 제가 전에 사용했던 단어인데,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흩어짐은 신약 성경 연구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일로 이어졌습니다. 초기 유대교와 예수 시대에 성전이 있었고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대제사장직과 제사장, 서기관이 있었고 성전이  
 초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 70년 이후 로마인들은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바위 하나하나가 무너졌고 성전은 서기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디아스포라가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은  
 기원전 721년 아시리아인들이 그들을 흩어놓았고, 그다음 바빌로니아인들이  
 들어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데려갔을 때부터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있던 회당에서, 만약 열 명의 남자가  
 있었다면 그들은 이런 회당들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 구조는  
 오늘날까지도 보스턴 북쪽 해안에 있습니다. 모든 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왜 중요한가요? 바울은 회당에서 회당으로  
 갈 것입니다.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는 첫 번째 장소는  
 회당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설교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는 둘째 날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 초대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설교할 것이고, 그가 다시 설교할 때 점점  
 더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고 마침내--이것은 단지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그는 세 번째로 왔고, 그가 세 번째로 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붙잡고  
 기본적으로 그를 끌어내어 돌로 치거나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회당에서 쫓아내고 바울은 쫓겨났습니다.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특히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랬습니다.

#### ㄴ. 유대교 기관들: 산헤드린 [ 48:57- 53:09]

이제 저는 다시 다양한 유대교 종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디아스포라(디아스포라는 실제로 종파가 아니라 유대인의 흩어진 것일 뿐입니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대교의 제도이고, 그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이러한 제도는 역할을 할 것이고, 예수님도 이러한 제도를 마주치실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기관은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사법 기관입니다. 대제사장이 운영합니다. 예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를 정죄할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대제사장이 운영하므로 사두개파가 지배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헬레니즘에 적극적으로 동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함께 산헤드린을 운영합니다. 서기관이라고 해서 항상 성경을 베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법적인 사람들입니다. 법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서기관에게 갑니다. 그들은 기술자이고 분석가입니다. 아마도 더 나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들은 법을 알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으면 서기관에게 가면 서기관이 본문에 적합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알려줄 것입니다. 장로들은 연장자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장로들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산헤드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법 기관이었습니다. 모세가 사법 제도의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영을 거두어 70명에게 주셨습니다. 그 70명은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하고 법정에서 사건을 판결하고 사법적 결정을 내리고 문제가 있으면 모세가 사건을 맡지만 그 70명이 그를 돕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은 그런 종류의 모델 위에 세워졌습니다. 서기 70년 이후에는 해체되었습니다. 서기 70년 이후에 산헤드린은 해체되었고 우리가 말했듯이 주로 사두개인들이 운영했습니다.

산헤드린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 치하에서 산헤드린은 특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체포하고 재판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체포하고 재판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대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헤드린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재판할 수는 있었지만 로마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사형에 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당시에 산헤드린이 그를 재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야바와 산헤드린 앞에 나아가시자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너희는 그의 신성모독을 들었고, 그는 죽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산헤드린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고, 로마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개입한 이유는 산헤드린이 사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심문하고 빌라도의 아내는 “이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에 대한 꿈을 꿴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는 바라바와 함께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축제 때였기 때문에 그는 죄수 중 한 명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줄까요,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까요?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는 그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것이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외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떠납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헤드린이고 그들이 일종의 사법 기관, 말하자면 대법원으로서 하는 역할입니다.

#### S. 유대교 기관들: 회당 [53:09-55:33]

우리는 회당과 그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당은 대체로 성전에 접근할 수 없어서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고, 그들이 어떤 도시에 있든,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 10명이 있다면 회당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와 오늘날에도 회당은 곳곳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명의 가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회당에는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회당의 첫 번째 기능은 학교였습니다. 중요성 측면에서 첫 번째 기능은 아니지만, 회당은 학교로 기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육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성경을 읽기를 원하기 때문에 읽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교는 매우 중요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매우, 매우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교육은 회당에서 나올 것이고 회당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배, 회당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예배하기 위해 회당에 왔습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의 법원 시스템이기도 했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지역 사회의 다른 규칙 내에서 유대인 커뮤니티 내에서 내릴 수 있는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체로 유대인 법원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결혼과 장례를 위해 어떤 의미에서 교회나 회당이 필요한가요? 결혼과 장례 과정에서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때인가요? 커플이 결혼할 때 많은 문화적 의식이 등장할 것입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과 그곳에서의 결혼식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매장할 때, 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교 문화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매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가지 기능이고 회당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회당에 들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회당 지도자 중 한 명조차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기독교의 확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실제로 원래 유대교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당입니다.

#### 다. 회당에서의 예배 [55:33-59:33]

이제 저는 우리의 현대 교회 예배와 비교하기 위해 예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교 예배, 회당 예배는 먼저 세마를 외웁니다. 세마는 신명기 6:4에 이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야훼는 오직 하나이시니라"입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이며, 모든 유대인이 이 구절을 알고 있다고 맹세합니다. 유대교의 요한복음 3:16입니다. "세마"는 "들으라" 또는 "경청하다"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야훼는 오직 하나이시니라" 그것은 일신교의 확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신교로 가득 찬 로마 제국에 흠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야훼가 그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온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세마를 낭송한 다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낭송합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교회 예배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종 교회 예배에서 초점은 설교, 성경 설명, 설교에 맞춰집니다. 설교는 20~30분 이상 걸립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설교는 사소한 부분이고 주된 초점은 성경 낭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길고 방대한 부분을 읽고, 에스더기 전체가 푸림 축제 때 읽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고 토라를 읽어서 사람들이 평생 토라를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낭독은 회당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짧은 설교와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제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시죠, “주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지키시고, 주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그런 종류의 것, 민수기 6:24와 그 뒤의 제사장의 축복. 그래서 랍비가 축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당이고, 그런데 노스 쇼어에 있는 회당에 가면 성경에 얼마나 중요성을 두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갔었는데, 윌슨 박사가 고든 칼리지 학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한 번은 회당에 간 학생들이 전체 의식을 거쳤던 걸 기억합니다. 바 미츠바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 미츠바와 배트 미츠바에 대해 아십니까? 바 미츠바는 아이가 12살쯤 되어서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성인 커뮤니티에 맞이하고 싶을 때 바 미츠바라고 불리는 것을 합니다(“바”는 “아들”을 의미하고 “배트”는 “딸”을 의미함). 기본적으로 그들을 성인 커뮤니티에 맞이합니다. 우리는 회당/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예배가 끝난 후에 윌슨 박사가 학생들이 랍비에게 질문하도록 허락했고, 랍비가 내려와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그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이 떠나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학생들은 알다시피, 고든이 아닌 음식은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윌슨 박사와 함께 있었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랍비가 내려왔을 때 랍비가 윌슨 박사에게 탈무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랍비에게 질문을 했고 랍비가 내려와 윌슨 박사에게 “탈무드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기 때문에 정말 웃겼습니다. 윌슨 박사가 떠나서 랍비와 대화를 나누며 윌슨 박사에게 그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윌슨 박사는 고든 칼리지의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이며 유대교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는 고전적이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를 “가족”이라는 뜻의 *미슈파하로* 여깁니다. 저는 다른 기독교인이 *미슈파하로* 여겨지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윌슨 박사님. 보스턴 북쪽 해안에도 회당 건물이 있습니다.

U. 당시 유대인 작가들: 요세푸스와 필로 [59:33-62:01]

F. 요세푸스, 필로, 교회와 이스라엘

[짧은 vi deos: UW 결합; 59:33-64:52 종료]

그래서 우리는 산헤드린과 회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기관, 하나는 법정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와 같습니다. 이제 유대인적 배경과 관련된 몇 가지 이름: 요세푸스. 요세푸스는 서기 37년에서 서기 100년경까지입니다. 요세푸스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복음서가 쓰여질 때 살고 있었고, 요한은 서기 95-97년경에 묵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과 요세푸스는 서기 100년경에 거의 같은 시기에 죽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로마인들과 함께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타협이 있지만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였고 그는 그리스 역사학적 방법론을 사용했지만 그는 그 시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지고 바울의 서신이 쓰여지고 기독교가 시작될 당시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작가 요세푸스는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고대사" 같은 책을 썼습니다.

필로도 한 명입니다. 필로는 기원전 20년에서 기원후 50년까지 살았으므로 필로는 아마도 예수가 태어났을 때 15~16세였을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예수는 분명히 일찍 돌아가셨고, 아마도 3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필로는 예수가 죽은 후 20년을 더 살 것입니다. 그는 사도행전을 거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까지, 기원후 50년까지 살 것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으로서 그는

그리스 문화에 매우 빠져 있을까요? 그는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적 사고방식에 매우 동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가 살았던 바로 그 시대의 사람일 것입니다. 필로라는 사람이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철학을 유대교와 섞는 것을 엉뚱하게 다루었으므로 필로는 작가가 될 것입니다. 필로와 요세푸스는 1 세기의 두 명의 주요 유대인 작가였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조금 알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들은 꽤 많은 문학 작품을 썼습니다.

#### V. 유대교에서 분리된 기독교 [62:01-63:31]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된 후, 원래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나사렛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유대교의 일부였고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교의 우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유대교 우산 아래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과 더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LXX와 칠십인역은 후기 유대교에서 두 번째 황금 송아지로 여겨졌는데, 주로 기독교인들이 칠십인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이 메시아가 예수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머, 우리는 칠십인역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헬레니즘의 산물이었고 기독교인들이 칠십인역을

인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칠십인역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칠십인역 학자 중 일부는 유대인, 임마누엘 토브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칠십인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각색한 후, 칠십인역으로부터 생각이 바뀌었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 일 때문에 그것을 멸시했습니다.

#### W. 결론 [63:31-64:52]

좋아요, 그럼, 문헌, 종파, 유대교의 다양한 배경, 그리고 신약이 자리잡을 유대 문화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 시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해 논의하고, 영감의 과정, 정경화 과정, 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전수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복사되고, 복사되고, 또 복사되었는지, 그리고 번역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신약이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어떻게 전수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감, 정경화, 그리고 서기관의 전수와 복사, 그리고 번역과 현대 번역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shley Holm이 필사함

Jen Straka가 편집함

Ted Hildebrandt가 편집한 대략적인 내용